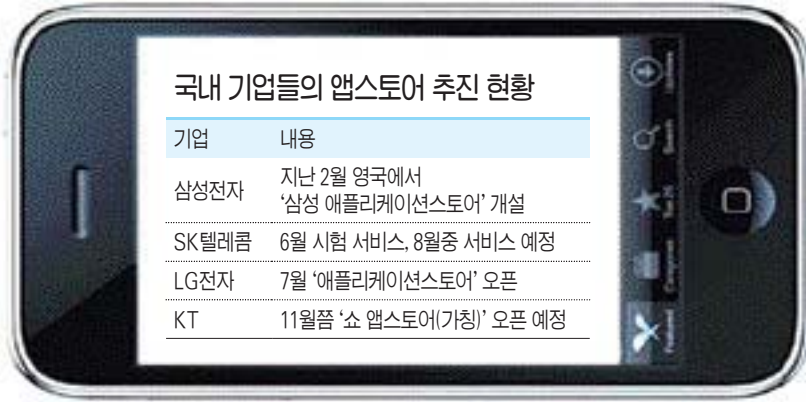


Digital & IT

스마트폰 인기에 '앱스토어' 열풍

'미리 지하실 역을 지정해 두면 해당 역에 도착시 휴대폰 알람이 나 진동으로 나를 깨워준다. 휴대 전화가 함께 여행중인 사람끼리 여행코스를 공유하도록 돕는다.'

국내 전자·통신업계에 온라인 소프트웨어 거래장터인 '앱스토어' 열기가 뜨겁다. 손 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모바일 시장의 경쟁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로 확대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직접 앱을 프로그램과 게임 등을 제작해 온라인 장터에 올려 저렴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데 마케팅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내 입맛대로 만들고 바꾸는 시대가 도래했다.



모바일 시장 무게중심 콘텐츠·SW로 이동 애플 개시 1년만에 다운로드 15억회 '대박' "대세는 SW"... 국내업체들도 속속 가세

◇애플사 '앱스토어' 1년간 다운로드 15억회=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채로 판매되는 휴대전화 내부의 프로그램 대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다. 게임도 저렴한 가격에 마음대로 휴대전화에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소프트웨어 거래장터의 시초는 애플사의 '앱스토어'(App Store)다. 애플사가 제조한 MP3 플레이어 '아이팟'이나 휴대전화 '아이폰'의 개별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소비하고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개시 1년 만에 응용프로그램 6만5천개, 다운로드 건수 15억회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최소 0.99 달러 상당의 응용프로그램이 하루 5백만회 다운로드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출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LG·SK텔레콤도 뛰어들어=애플사의 앱스토어 성공에 자극받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가 애플이 한국판 앱스토어를 구축하기 위해 나섰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삼성애플리케이션스토어를 해외에서 열었다. LG전자는 지난 7월14일 LG애플리케이션스토어를 열고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를 시작으로 서비스 중이다.

SK텔레콤은 8월 중 앱스토어 상용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KT는 11월 초 콘텐츠 소프트웨어 장터를 개장할 계획이다. 값비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도 응용 프로그램이 부족해 심심해 하던 이용자들에게 희소식이인 것이다.

◇휴대전화 대세는 이제 '소프트웨어'=삼성이나 LG전자 등이 프로그램 콘텐츠

시장에 대해 진출하는 것은 휴대전화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다는 판단에서다. 애플 아이폰은 '앱스토어'로 인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으며 세계 휴대폰 시장 1위 노키아도 '오비(Ovi)'라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임박해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앱스토어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며 "애플의 앱스토어가 앞서간 만큼 후발주자들은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이동사, 단말기 제조사, 플랫폼 공급자 간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

7월 한달 3조8천억원 거래

거래량은 10.7% 감소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의 7월 거래량은 줄고 거래대금은 늘었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은 7억3천963만주로 전달의 8억2천824만주에

비해 1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3조7천755억원으로 전달의 3조6천356억원에 비해 3.85% 증가했다.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래량 2.65%, 거래대금은 2.14%로 집계됐다. 지역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진투자증권(1천283만주), SK증권(1천178만주), 케이씨오에너지(1천171만주), 하이닉스(791만주), C&우방랜드(780만주), 대우부품(713만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코스닥 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메가바이온(2천594만주), 테라리소스(1천782만주), DM테크놀로지(1천423만주), 글로벌웍스(1천47만주), 우원인프라(856만주), 하이셀(820만주)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이닉스, LG전자, 우리금융, 삼성중공업, 기아차 순이며 코스닥시장에서 다날, 이수업지스, 서울반도체, 대한뉴팜, 테라리소스 등의 순이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그릇이야? 액자야?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꽃을 테마로 한 주방용품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꽃을 테마로 한 주방용품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난 워킹 푸어"

직장인 70% 근로빈곤층 생각

직장인 대부분은 자신이 '워킹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층)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워킹푸어 인지 정도' 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1%(536명)가 자신을 워킹푸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중 비정규직 기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남성(68.7%)보다는 여성(71.6%)이, 정규직(66.5%)보다는 비정규직 직장인(73.6%)이 자신을 워킹푸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기준 여성은 응답자의 77.6%가 자신을 워킹푸어라고 답했다.

자신이 워킹푸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부족해서'란 답변이 70.3%로 가장 많았고 퇴직 시 생계 곤란(38.1%), 부채 감당이 어려워(28.2%), 고용불안(24.8%) 등의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또 자신을 워킹푸어라고 답한 직장인 536명 중 절반을 넘는 59.3%가 워킹푸어를 오랜 기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푸어가 생기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을 유도하는 사회적 구조(4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합뉴스

전통시장 활성화 스토리텔링 공모

"전통시장의 숨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살펴봐요."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를 실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해석해 사람들에게

개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원고지 20매 분량으로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방문, 우편 및 이메일(nexus286@naver.com)접수하면 된다. 공모신청서는 홈페이지(www.gjmarket.net)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최우수상 등 수상작에는 상금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오는 9월1일 '빛고을 시장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070-8228-6730~3.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소리가 맑습니다 3. 소리가 편안합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 9970

수원점 (03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남성 헤어 기능장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살핀대 **최신제품**

888-KBO '사랑세상' 후원

가발

초슬림!! **각각 50만원~** 7월 31일까지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불행의 원인을 알려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2-639-9998 / 02-639-9999

문의: 011-600-9955

SONY

VAIO 31인치 사진용 북미가발

최대 New VAIO의 무제한 선택

My Style My VAIO

문의: 02-2079-7810 / 02-2079-7811

03-708-1111 (AUMH)

02-2079-7810 / 02-2079-7811

02-2079-7810 / 02-2079-7811

VAIO